결제·해제 무관하게 생애 걸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太平治業無像(태평치업무상)이요
野老家風至淳(야노가풍지순)이라.
只管村歌社飮(지관촌가사음)하니
那知舜德堯仁(나지순덕요인)이리요.

태평세월에 업을 다스리는 데는 상이 없음이요, / 들 늙은이들의 가풍은 지극히 순함이라. / 다못 촌에서 노래하고 모여서 마시는지라, / 이에 순임금의 덕과 요임금의 어짊을 어찌 아리요.

금일(今日)은 경자년(庚子年) 동안거 해제일이라. / 결제대중이 삼동구순(三冬九旬) 동안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세상과 단절(斷絶)하면서 밤낮없이 용맹정진한 것은 가상(嘉尙)한 일이나, / 대장부의 활개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애석하기 짝이 없음이라.

어째서 그러한가?

중생(衆生)들은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반연(攀緣)과 습기(習氣)의 업(業)으로 인해 혼침과 망상으로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이라.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의 발심(發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용기를 가지고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

화두를 챙길 때는 살얼음 위를 걷듯이, 시퍼런 칼날 위를 걷듯이 온 정신을 화두에 모아야만 육근육식(六根六識)의 경계를 다 잊고 몰록 일념삼매에 들어 일기일경(一機一境)상에 홀연히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게 됨이라.

이는 새벽이 오면 반드시 날이 밝듯이 화두일념이 현전(現前)하여 지속되기만 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됨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지으나 청소를 하나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챙기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선지식(善知識) 가운데 으뜸가는 위대한 선지식이고, 종문(宗門)의 귀감(龜鑑)이신 덕산(德山) 선사께서 회상(會上)을 열어 대중을 지도하고 계셨다.

참으로 훌륭한 두 분의 눈 밝은 제자를 두었는데, 한 분은 암두(岩頭) 선사로 참선하여 깨달은 바도 없이 그대로 생이지지(生而知之)요, 또 한 분은 훗날 천오백 대중을 거느리신 설봉(雪峰) 선사였다. 이로 좇아 운문종(雲門宗)과 법안종(法眼宗)이 출현했다.

하루는 덕산 선사께서 공양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발우(鉢盂)를 들고 공양실로 걸어가셨다. 공양주인 설봉 스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여쭙기를,

"조실스님,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덕산 선사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리셨다.

그 광경을 설봉 스님이 사형(師兄)되는 암두 스님에게 말하니, 암두 스님이 듣고는 대뜸 말하기를,

"덕산 노인이 말후구(末後句)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자신의 스승이건만 단번에 이렇게 평가를 하니, 법을 논(論)함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를 따지지 않는 법이로다.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덕산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뜻이 무엇이며, 암두 스님은 어째서 덕산 선사가 말후구 진리를 알지 못했다 했는지 알아야 함이로다.

암두 스님의 그 말이 총림에 분분하여 덕산 선사의 귀에 들어가니 암두 스님을 불러서 물으시기를,

"네가 왜 내가 말후구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고?"

하시니,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히 속삭였다.

도는 모든 것으로 통한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山色水流諸佛現(산색수류제불현)
門外倭是悟無生(문외수시오무생)

산빛에 물 흘러 모든 부처 나타나니
문밖에 그 누가 생명 없음을 아는가

오늘이 해제라 하니 어떤 해제인가.

한겨울 90일을 두고 빠르다 하면 사견망상(邪見妄想)과 수면마(睡眠魔)를 취모리(吹毛利) 한 칼에 쳐버리고 화두일념으로 백척간두에 우뚝 선 천하대장군 수행자요, 느리다 하면 천지가 개었다 흐렸다 하다가 미륵하생(彌勒下生)에도 조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없는 생사고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름만 수행자라 할 것이다.

정점을 향해 활을 떠난 화살이 해제와 결제가 어디 따로 있으리오마는 그저 이름만이 분별할 뿐이다.

그렇기에 옛 인도의 싯달타 청년 왕자는 만고의 부유만덕 속에 생로병사의 현상을 한 번 보고 할애(割愛) 출가하니 6년 고행에서 유아독존의 부처를 이루었고 옛 중국의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은 육조(六祖)의 한마디 말에 8년을 추구하다 확연대오하여 육조의 법맥을 이었다. 이를 누가 모르며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 전등의 조사 가풍을 누가 모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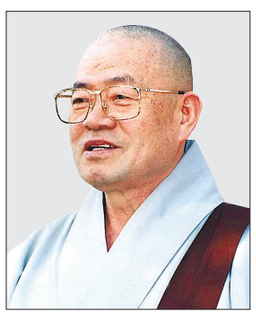
대지에 뿌리를 뻗고 자라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그 나무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무심히 지나는 바람결과 그 바람을 따라가는 흰 구름이 스치는 바위는 요지부동이거니 짚신 한 짝 지팡이에 메고 총령 고개를 넘는 달마 대사를 알아차린 늙은 바위가 대중을 향해 노래 한 곡 부르겠다 한다.

木鷄鳴子夜(목계명자야)
芻狗吠天明(추구폐천명)
陰陽不到處(음양부도처)
一片好風光(일편호풍광)

나무 닭 한밤중에 울고
짚으로 만든 개 하늘 밝다 짖으니
그늘도 볕도 이를 수 없는 곳
한 조각 경치 더없이 좋네
나무아미타불

일대사 마친 자, 걸림없는 자재인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치고 이르시되
(上堂 하야 打拄杖三下 云 하되)

격에서 뛰어난 대장부는
뜻이 종횡하니
뜻대로 하는 쾌할 자재한 사람이로다.
황금과 백옥이 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 것이 이것이 귀함이로다.

出格丈夫意縱橫 하니
任運自在快活人 이로다.
黃金白玉未爲貴 요
識心見成是爲貴 로다.

또(又)

한 주먹으로 수미산을 쳐서 거꾸러뜨리고
심왕의 법왕궁을 건립하도다.
육국을 평정한 안온한 세계에
널리 시방불보살 및 중생에게
공양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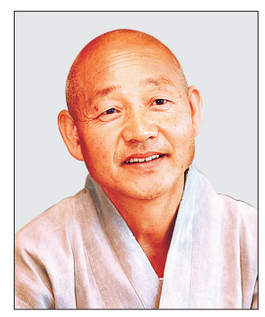
一拳打倒須彌山 하고
建立心王法王宮 이로다
平正六國安溫界 에
普供十方諸刹海 로다.

일대사를 마친 자는
걸림이 없는 자재인 이니라.

終一大事者 는
無碍自在人也 라.

삼동결재 원만히 성취해 청백안 얻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上無片瓦하고
下無卓錐로다
日往月來에
不知是誰오 噫라

위로는 기와 조각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데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라. 아! 슬프다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운수납자여!

어제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더니 오늘은 송곳마저도 없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이러할진대 원수와 친한 이가 있고 근심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기는 범단(范丹)과 같으나 그 기개는 마치 항우(項羽)와 같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부유하면 일천의 대중도 적다하고, 가난하면 한 몸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납자들이 삼동결재를 원만히 성취해서 삶이 꿈과 같고 뜬구름 같음을 체득했으니, 이는 청백안(靑白眼)을 얻어서 오가는 모든 일들을 웃으며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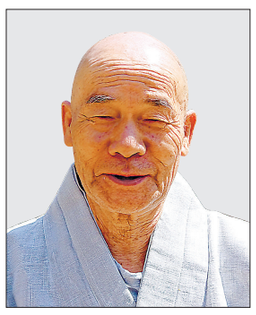
적적하고 요요해서 한 물건도 장애될 것이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 우리 불가(佛家)의 살림살이가 본래 그러하여 어디를 가나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납자여!

산문 밖을 나가서 혹 영산 소식을 묻거든 지난 추위에 영각 앞 자장매가 더욱 곱고 향긋하다 전해주시오.

코로나는 부처님 발심법문…이웃 돌아봐야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동안거 죽비를 놓고 문을 여니, 얼음 풀려가는 대지에 한웅큼 땅향기가 지나갑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울려옵니다. 산천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명백하고 묘하도다.훤출해서 태허공을 덮었고, 섬세해서 일체만물로 함께 흐르네.보고 듣고 삼세를 넘어있고, 백천 인연에 섞이지 않네.낮은 구름 터진 하늘에 기러기 일자로 날아가고달 떨어지는 곳에 원숭이 울부짖네.

-만공스님-

일물장재천지간 一物長在天地間
무량불조차개출 無量佛祖此個出
동서남북무처소 東西南北無處所
홀연돌출주장자 忽然突出拄杖子

일물이 길이 천지를 덮었네.
무량불조가 이 낱으로부터
출현하시네.
동서남북 처소가 없어도
홀연히 주장자 머리에 돌출하시네.일체가 한 생각이다. 이 신비여! 이뭘까?
굴릴수록 새 천지, 만고에 새롭네.
종일 써도 더욱 새롭고, 더욱 싱싱해.
이놈이네, 이놈이네, 이~놈이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고, 생각에 이뭘까가 너울너울 함께하니, 이 생각이 무진보장이로다. 오매일여 몽중일여 앞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생각이 구경원성 살반야로다.

혜월스님께 금봉스님이 물었습니다.
"견성한 사람도 생사가 있습니까?"
혜월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허공이 생멸이 있더냐?"
금봉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돌아와 이 사실을 만공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공스님이 "왜 대답을 않고 돌아왔느냐?"
금봉스님이"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대답하라는데 무슨 잔소리냐!"만공스님은 핀잔하셨습니다.
금봉스님이 멍멍하다가 문득 화색이 돌며 말씀드리기를 "스님! 참 그렇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공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 머리 깨지는 대목이니라!"
뒷사람이 평을 붙이기를,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거꾸러지네' 라고 했습니다.
귀한 딸을 백정집으로 격하시켰네.
생각하면 선지식 머리 깨지는 공덕이 하해와 같습니다.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했습니다. 소띠해 1년 365일을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께 머슴같은 소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코로나19 역병은 부처님의 발심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허스님의 용맹정진의 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발바닥으로 내리고 뚜벅뚜벅 코 꿰이지 않는 상머슴 같은 소가 되어 이웃에 도움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 이놈이네, 이놈이네, 이놈이네, 이~뭘까?

일거양득 一擧兩得 / 대시무단 大是無端
흔번과구 掀翻窠臼 / 굴착일반 屈着一般

하나를 들어 둘을 얻었네. / 크다, 이놈이여! 통하지 않는 데 없네. / 내 고집 소굴을 엎어버리니 / 천하가 무릎을 꿇네.

본분사에 삶·죽음 구별 없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도오원지(道吾圓智)선사와 점원중흥(漸源仲興)선사가 인근 마을 상가집에서 함께 조문을 마친 뒤 중흥이 물었습니다.

"생야(生耶)오? 사야(死耶)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자 도오가 말했습니다.

"생야부도(生耶不道)요 사야부도(死耶不道)로다.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두세 번 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선지식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공부로 연결시켰고 또 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삶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상갓집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도오선사의 양변을 벗어난 한 마디에 바로 알아차렸다면 그 자리에서 생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중흥은 여전히 생사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던진 말이 올가미가 되어 계속 그 말에 끄달림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흥은 도오 회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뒷날 도오가 열반한 뒤 중흥은 그 화두를 해결하지 못하고 석상경저(石霜慶諸)선사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흥의 질문에 석상 역시 도오의 법을 이은 제자답게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중흥선사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는 것도 온전함을 전부 드러낸 것이며 죽은 것도 온전함을 모두 드러낸 것입니다. 본분 사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앞뒤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할 수 없다' 는 그 말에서 그 낙처(落處)를 꿰뚫을 수 있다면 바로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꼼짝 못하게 꽉 틀어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반드시 스스로 참구하여 스스로 깨달아야 함을 중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제일입니다.

대중 스님들께서 결제 때 여법하게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면 자칫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비 대면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 경계를 만났을 때 오히려 혼자서 마스크 쓰고 공부하면서 만행하던지, 선원에 남아서 정진하던지, 산중 토굴에서 정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정진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시절인연이 도래할 때 생야(生耶)와 사야(死耶)가 둘이 아닌 경지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생사사생휴갱문
(生死死生休更問)하라
종래일오타삼경
(從來日午打三更)이로다

살았건 죽었건 죽었건 살았건 묻지를 말라.

원래부터 한낮에는 삼경(三更)종을 쳤노라.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